

- 본문 : 사무엘상 1장 1~8절
- 제목 : “위로할 줄 아는 가정”

설교자 : 이의수 목사

· 본문 읽기

1.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솜의 현손이더라
2.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3.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와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4.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 매년 한나가 여호와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8.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 마음의 문을 열며

행복한 가정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함께하는 동안 힘들고 지쳤던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힘들었던 많은 일들도 주저함 없이 나누며 마음의 짐을 덜어냅니다. 함께하는 시간 동안 위로 받고 힘을 얻습니다. 좋은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서로 돕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해 주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어떤 위로를 받았습니까? 송원교회 영가족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위로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 어떤 일로 위로를 받았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문제 없고 사연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삼상1:2)
2. 우리 가정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족 문제 중에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3.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문제가 더 커지고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보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먼저 위로하거나 격려해 본 일이 있습니까?
4. 비난과 비판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게 익숙해진 비난과 비판을 멈추고 위로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시작하겠습니까?

· 삶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사역을 위한 모임을 가질 때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과 비판을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내가 사용하는 언어와 인격에서 확인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은 밝은 표정, 부드러운 목소리, 사랑 가득한 위로와 격려의 언어가 일상화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 말씀기도제목

1.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비난과 비판의 대상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는 긍휼 넘치는 마음과 생각을 주옵소서!
2. 우리 가족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우사 나의 사랑과 섬김과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로 인해 가장 편안하고 평안한 가정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질 때, 사랑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언어가 일상의 언어가 되어 온 교회가 치유자로서 회복시키는 일상을 살게 하옵소서!

